

#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 열기 고조

## 도내 8팀 포함 시·도 대표 36개팀 출사표 “선수단·가족 1500~1800명선… 특수 기대”

제15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 대회 개막이 점차 다가오면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회에 비해 출전팀이 7개 늘며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

18일 제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8개팀을 비롯한 전국 시·도를 대표한 선수단 36개팀이 출사표를 던져 우승기를 거머쥘다는 각오다. 지난해 29개팀에 견줘 몸집을 불리면서 관광 성수기와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피서철을 맞아 선수단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제주를 찾아 야구는 물론 가족 단위 관광에 나섰다”며 “올해는 출전 선수단 규모가 늘어 적어도 1500명에서 1800명 가량이 제주를 찾아 청정제도의 여름을 만끽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제주시 지역 출전팀은 지난해 유일하게 8장 문턱을 통과한 제주교도소

를 비롯한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소방안전본부, 제주도교육청, 제주세무서 등으로 홈에서의 우승을 기약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6강전 서귀포시청과 8강전 제주교도소를 승리하며 공동 3위를 차지한 시흥시청이 출사표를 던지며 우승 사냥에 가세한다. 반면 지난해 우승팀 경기남부경찰청과 준우승팀인 경주시청, 종합 3위 부산시청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는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시체육회, 제주도야구소프트볼협회, 제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을 비롯한 서귀포강학야구장,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야구장 등에서 분산 개최된다.

경기는 예선 조별리그제, 본선은 토너먼트제로 치러진다. 예선은 최

소 2경기 링크제로 하며, 예선 2승팀 가운데 조2위 팀은 와일드카드 방식으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경기 대진표도 확정됐다. 제주 출전 팀은 8월 30일 오라야구장에서 ▷제주세무서-여수시청 ▷제주소방안전본부-광산구청 ▷제주도청-예산군청 ▷제주시청-진도군청 ▷제주지방경찰청-무안군청 등의 경기를 소화한다. 또한 강창학구장에서 ▷제주도교육청-서산시청 ▷서귀포시청-서해지방경찰청의 경기가 있다. 신례리구장에서는 제주교도소와 강서구청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어 8월 31일 오라야구장에서 ▷제주교도소-완주군청 ▷서귀포시청-광산구청이 자존심을 건 한 판승부에 나선다. 아울러 제주종합경기장 생활구장에서 ▷제주교도소-제주시청 ▷제주세무서-감사원 ▷제주도교육청-원주시청의 경기가 치러진다. 강창학구장에서는 ▷제주소방안전본부-익산시청 ▷제주도청-철원군청이 격돌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신례리구장에서 여수시청과 맞선다.

백영탁기자 haru@halla.com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에서 8회초 아메리칸리그(AL) 올스타 대타로 나서서 안타를 때리고 있다. 이날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나온 한국 선수의 첫 안타와 득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꿈의 무대서도 멈추지 않는 ‘CHOO’

## ‘한국 타자 첫 올스타’ 추신수, 올스타전 안타 박찬호-김병현 이어 한국인 세번째 올스타

한국인 타자 중 최초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나선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안타를 치고, 득점하며 ‘꿈의 무대’를 만끽했다.

추신수는 18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2-2로 맞선 8회초 대타로 나서서 좌전 안타를 쳤다. 8회 시작과 동시에 벨스 크루스(시애틀 매리너스)를 대신해 타석에 선 추신수는 좌완 조시 헨더(밀워키 브루어스)의 시속 156km 직구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쳤다.

추신수는 ‘51경기 연속 출루’의 빛나는 훈장을 달고 한국 타자 중 처음이자, 한국인으로는 박찬호(2001년), 김병현(200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올스타에 뽑혔다.

추신수는 2011년 19살의 나이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올스타전 성적은 2타수 1안타 1득점이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승패는 홈런포로 활약한 추신수는 역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한 경기 최다인 홈런 10개(총전 6개, 1951년, 1954년, 1971년)를 쳤다. 홈런을 양 팀 모두 5개씩 쳤으나 AL 올스타가 NL 올스타를 8-6으로 눌렀다.

## 제주Utd-덕수초의 시원한 여름 추억 선수단에 직접 만든 형광 응원 부채 선물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와 덕수초등학교가 ‘시원한 여름 추억’을 만들었다. 덕수초는 18일 견학차 제주클럽하우스를 방문, 제주 선수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전달했다.

제주의 열렬한 팬인 덕수초 어린이들은 선수들이 무더위를 이기고 18일 전북 원정에서 승리의 감동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접 만든 형광 응원 부채를 선물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주의보에도 클럽하우스 전용구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던 제주 선수들은 커다란 감동과 함께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선수단은 아이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갖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용형은 “아이들의 진심 어린 선물을 받아서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고, 응원 부채는 힘들 때마다 쓰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덕수초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을 인솔한 이주연 교사는 “제주선수단의 뜨거운 환영에 아이들도 힘을 받았다”며 “정말 시원한 여름 추억이었다”고 화답했다.



제주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를 방문한 덕수초 학생들과 선수단. 백영탁기자

## 김지혜·현진주·양세미 한국체조 대표로 국가대표·상비군·청소년대표 발탁

제주 여자체조의 기대주 양세미(남영고 3)·현진주(한라중 1)·김지혜(제주소초 6) 선수가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후보, 청소년대표에 각각 발탁됐다. 이들은 초·중·고교를 대표하는 주자들이 앞으로 제주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주니어 체조의 간판인 양세미는 지난 10월 충북 충주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체전에서 여고부 도마 1위와 마루운동 2위를 차지하며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였다. 또한 지난해 국가대

표선발전 2위, 제72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합 2위, 도마 1위, 이단평행봉 2위, 평균대 1위, 마루운동 3위를 각각 쟁기며 맹활약하고 있다. 현재 인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국가대표 후보(상비군)로 선정된 현진주는 18일을 시작으로 8월 6일까지 3주간 강원 중앙초에서 훈련한다. 현진주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펼쳐진 제47회 전국소년체전에서 도마와 마루운동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



김지혜 현진주 양세미

다. 평균대에서도 3위에 입상했다. 또한 제73회 전국종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종합 2위, 도마 1위, 마루운동 2위를 차지했다.

청소년대표 김지혜는 오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대구 원화여중에서 소집훈련에 들어간다.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 개인종합 2위와 평균대 1위에 오른 바 있다.

## “서귀포국민체육센터서 건강 챙기세요” 8월 수영·검도·요가·서킷트레이닝 교실 운영

서귀포국민체육센터가 8월 수영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 기간 및 장소는 25일부터 30일 까지이며, 매표소에서 이뤄진다. 모집 인원은 초급 새벽반과 저녁반 각 25명씩 성인 대상 50명이다. 다만, 오전반은 8월 어린이 특강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

수영교실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6시30분과 오후 7시부터 50분간 진행된다. 강습비는 1인 6만원이며, 경로·장애인의 경우는 제주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국민체육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특강 교

실을 운영한다. 접수기간과 운영일은 성인 수영교실과 동일하며 강습비는 1인 3만원이다. 교육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 모두 초급반 3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신장 130cm 이상이어야 수영교실에 참가할 수 있다.

서귀포국민체육센터는 수영교실 이외에 검도는 물론 요가교실과 서킷트레이닝교실, 비만탈출 다이어트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체육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서귀포국민체육센터 064)760-3643. 백영탁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명품역사관 정미복 11:50 슬터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TV스설 파도야 파도야 9:40 고그들의 여유인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당신의 하우스헬퍼(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비밀과 거짓말(재) 8:30 TV특강 9:30 930 MBC뉴스 9:45 기분좋은날 10:50 이별이 떠났다(재) 11:25 이별이 떠났다(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30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나도 엄마야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00 예나그날이 11:30 고영미 보인다	7:30 피파버스 타요 8:00 덩동명 유재철 1 9:30 원더볼츠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00 EBS 정오뉴스 15:00 마사와 골 스페셜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8:0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9:00 레이더버그 20:40 세계테마기행 21:50 다크시선 22:45 다문화 고부열전
12:00 KBS 뉴스 12 13:00 사명의 가족 13:50 공룡 메가드 14:20 드래곤에그 14:50 제주 위기 메아리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제주가 보인다	12:10 인형의 집(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0 자몽공부책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 누가 잘하나 17:00 파파파 V 17:15 퐁퐁 2 17:30 주간 연예수첩	12:00 12 MBC 뉴스 12:20 이별이 떠났다(재) 13:20 부잣집 아들(재) 13:55 부잣집 아들(재) 14:3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15:25 판다랑 15:55 꾸러기 식사교실 16:25 비밀과 거짓말(재) 17:00 5 MBC 뉴스 17:20 할머니네 동감이지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백년소년 14:00 뉴스브리핑 16:00 토크콘서트 화통 17:00 SBS 오디션 17:45 JIBS 저녁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임의정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나눔종합뉴스 12:1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30 시사저기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4:00 한용재의 CCM 캠프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5 한국인의 밥상 20:25 내일도 맑음 21:00 KBS 뉴스 9 22:00 KBS 스페셜 22:50 UHD 슬터 23:00 KBS 뉴스라인 23: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긋불긋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인형의 집 20:30 글로벌 24 20:55 속보이뉴스 TV 인사이드 22:00 당신의 하우스헬퍼 22:35 당신의 하우스헬퍼 23:10 해피투게더 23:55 해피투게더	18:20 대자연 19:15 비밀과 거짓말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할머니네 동감이지 22:00 이리와 안아줘 22:35 이리와 안아줘 23:10 남의 회사 유령기 쿠내식당	18:00 정글의 법칙(재) 19:00 클릭! NOW 제주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2:55 순간포착 세상엔 이런 일이 23:00 혼남정음 23:35 혼남정음 23:10 김어준의블랙하우스1부 23:50 김어준의블랙하우스2부	6:30 여행의 레시피 7:00 KCTV 뉴스 8:30 열린 TV광장 9:30 다문화 시트콤 하이픈 세가족 10:00 2018 예술의 전당 동요콘서트 11: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4:00 제주코리아오픈 17:00 KCTV 뉴스 21:30 KCTV 종합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19일**

김종상 지관(4년)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이 보약. 48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 일에 열정하라. 60년 추진하는 일이 풀리고 의욕고취. 직장인은 대인관계에 중점. 72년 승진, 취업 또는 상을 받을 일이 따른다. 경영, 개업은 심사숙고. 84년 동료와 융화를 하거나 협조할 일이 생긴다.

**37년**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추진해가면 일이 풀린다. 49년 시비 구설이 오니 언쟁을 피하고 질투하지 마라. 61년 재주가 많은 사람은 오늘도 끊임없이 배우라. 73년 뜻밖에 희소식이 기다린다. 약속은 서시간에 도착이 중요. 85년 감정대립 또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언행을 조심하는 게 좋다.

**38년** 가족·친구간 모임 있겠다. 차는 가지고 가지 않는게 좋다. 50년 모임이 있다. 조기 귀가. 귀가가 늦으면 불화가 된다. 62년 자녀에 대한 애정이 많아지고 배려한다. 부부간에도 화목해지고 원만. 74년 외출 또는 여행할 일이 있다. 차량운전은 조심. 86년 내 생각을 적극 추진하라. 운은 내가 취하는 것.

**39년** 하던 일이 안 풀리면 잠시 휴식 필요. 51년 자식에 의한 애경사가 있다. 상의가 필요. 63년 이사 또는 변화가 있다. 문서상 이득이 있고 재물이 생긴다. 75년 바쁜 소식을 접하거나 초대받을 일이 생긴다. 87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이와 만남은 늘 포근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40년** 집안일로 외출 또는 여행을 한다. 물건구입시 과소비 주의. 52년 자기사업을 한다면 마무리를 잘 해야한다. 64년 언쟁이나 다툼이 생긴 소지가 많으니 필요 이상의 언행을 하지마라. 76년 전문성 또는 유행을 창조하는 분야는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 88년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다.

**41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53년 친목 또는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음주 자제. 65년 상대자와 언쟁이나 다툼을 피할 것. 내 자랑만큼 자금지출과 일치. 77년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 생기고 기쁨도 있다. 이성소식이 오면 만나라. 89년 유행 낭비하는데 지출이 생긴다.

**42년** 문서 매매 이동에 길. 여행갈 일이 생긴다. 54년 업무나 납품물건에 하자 발생. 뜻대로 일의 성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 66년 대립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양보의 배려. 78년 자금거래를 삼가라. 보증문제 발생. 이성관계에 불협화음. 90년 모임이 있거나 활동이 왕성할 눈. 돈지출이 생긴다.

**43년** 동료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5년 바쁘게 활동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적어 지속한다. 67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거나 정리하는 하루. 내부 일에 치중하라. 79년 친구와 불화가 오니 언행을 조심하라. 91년 다툼은 오래가나, 즉시 화해하거나 오해 없도록 자리를 피하라.

**44년** 물건을 분실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56년 적절한 규모있는 자금지출을 하라. 과소비에 스트레스 우려. 68년 도전의식과 의욕이 강함만큼 치밀한 계획과 실천력이 필요. 80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92년 노력 끝에 결실이 맺으니 일에 진전이 있고 희망도 있다.

**45년** 아이를 위한 기도나 상담도 따른 필요하다. 57년 내 마음과 육신이 허전함을 고독으로 느낀다. 여행을 떠나라. 69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는 때. 미혼자 결혼 추진 적극하라. 81년 전문성의 시대 전문성에 도전하라. 93년 진전을 생활화하라. 밀어붙이 다음에 후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46년** 몸이 이상이 오거나 구설수 조심해야 한다. 58년 휴식을 취하고자 하여도 내 일이 산적해 있다. 집안일에 치중하라. 70년 외출을 하거나 손님이 방문하여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미팅이 추진되거나 친구 축하하러 가게 된다. 94년 재물의 지출이 생기거나 곧 회복된다. 생각지 않던 돈이 들어오기도 한다.

**47년** 급한문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 59년 직원에 의한 고민이나 자식의 문제로 걱정을 한다. 71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질투할 일이 생긴다. 친구간 경쟁은 금물. 83년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더 노력하여 전문가로 발돋움할 것. 95년 결실을 거둬들이는 이익이 있다. 내집에 할 일이 많아진다.